

쓰레기 줍고 심기 반복 땀 ‘뚝뚝’...“여름철 고역”

폭염에 맞서는 야외 노동자들

〈4〉환경미화원

봉투 속 내용물에 다치거나 맞기도...“수거 고충 알아주길” 시민들 코 막고 지나가거나 피해 가도 자부심 갖고 일해

“무더위에는 음식물이 빠르게 부패해 냄새도 더 역하고 땀과 섞이면 하루종일 고역이지만, 우리가 있어야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 새벽을 열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8월 중순, 31도를 넘는 날씨에 10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에 젖지만 도시의 쾌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다.

18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에서 만난 3인1조로 이뤄진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 담당 환경미화원들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낮,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는 땀을 닦아 가며 바쁜 손길로 쓰레기가 가득 찬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동을 위해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탑승한 이들은 한 여름 내리쬐는 열기를 피

할 길 없었다. 또 쓰레기 독성을 막기 위한 방진 마스크까지 착용한 탓에 차에서 내렸다 다시 오르며 큰 호흡을 내쉬길 반복했다.

반팔만 입어도 더운 여름 날씨지만, 이들은 반팔 안에 기능성 긴팔을 하나 더 입고 그 위로 환경미화원 조끼까지 입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쓴 헬멧 안으로는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캡모자를 하나 더 쓰고 있었다.

이들은 여름에도 반팔을 입지 못하는 이유로 “칼과 유리 등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귀띔했다.

환경미화원 10년차 A씨는 “종량제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땀이 몸 안으로 훑 들어오는게 느껴질 때가 있다. 칼이다. 아픈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동료가 ‘몸에 피난다’고 말해주서 가슴



18일 오전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에서 환경미화원이 3인1조로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다인기자

팍에 피가 묻은 걸 보고 그제서야 다쳤구나 할 때가 많다”며 “종량제 봉투 안에 든 칼, 사기 그릇 같이 날카로운 물건들은 우리에게 곧 흉기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A씨를 비롯, 환경미화원들은

종량제 봉투에 무방비하게 들어있는 날카로운 물질에 자주 부상을 입는다. 퇴근하고 나면 온 몸 이곳저곳이 긁혀있는 것은 다반사며 칼 등에 허벅지를 베이고 손가락을 다치는 일이 잦다.

환경미화원의 여름철 또 다른 애로는 다름 아닌 ‘음식물’이다. 이날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린 쓰레기 봉투는 차량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 ‘팍’ 소리를 내며 음식물을 토해냈다.

이를 지켜보던 환경미화원 B씨는 “음식물이 든 봉투가 차량에 들어가면 음식물 쓰레기가 사방으로 터져 나온다”면서 “이걸 우리는 온 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온 몸에 묻은 음식물은 이들의 식生活에도 영향을 끼친다. A씨는 “땀 냄새랑 음식물 냄새가 섞여 민폐가 될까 식당으로 들어가기 눈치 보며 점심도 편하게 먹지 못한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받아주는 식당만 가다 보니 매번 먹던 것만 먹게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 가장으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책임감이다.

A씨는 “일하다 보면 우리를 피해 빙 돌아가고 코를 막고 걸쭉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가끔은 울컥하고 서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힘을 내서 일하게 된다”고 환히 미소를 지었다.

끝으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버리면 안되는 건 물론이고, 날카로운 물건은 종이로 포장해서 처리해주시거나 봉투에 경고 문구라도 적어 놓아주면 감사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당부한 이들은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분주했다. /김다인기자

화물차 고속도로 사망사고 속출...단속 강화

광주·전남 올 상반기 지난해 比 2배 ↑ ...연말까지 실시

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대적인 현장단속 강화에 나섰다.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6건으로 이 중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 67% (4건)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익산국토관리청과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 상반기 호남권(전남·전북) 고속도로 주요지점 16개소(TG, 휴게소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50대 중 381

대가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이는 69%에 달하는 수치로 점검 대상 화물차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불법개조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주요지점에서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행위 일제(과적·적재불량·장치개조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단속은 지난 1월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과 더불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호남권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단속 내용은 자동차 불법개조(판스프링), 교통안전장치 장착 및 작동상태 확인 등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튜닝 자동차와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주요 교통안전장치 설치(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도 단속대상이다.

양정훈 광주·전남본부 본부장은 “자동차 불법개조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단속으로 광주전남지역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전남·경남 돌며 빈집 턴 60대 구속

전남과 경남 일대를 돌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60대가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 (60)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순천과 경남 창원 등을 돌며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전에 범행대상지를 물색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 현관문을 공구를 사용해 잠금체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여수=김진선기자

전방부지 재개발 막다 요양병원장 다쳐

옛 전남방직 부지에서 세입자인 병원장이 전방 측의 굴삭기에 몸으로 막다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50대)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 부지 내 요양병원에서 철거작업 중 B (6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위해 굴삭기로 병원 외곽을 둘러싼 철제 울타리를 제거 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에 반발하다가 굴삭기에 얼굴과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옛 전남방직은 2020년 6월 세입자들과 임대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도 소송을 제기한 전방은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철거 집행을 법원에 요청했다. /안재영기자

지명수배자,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 폭행

수배 중이던 60대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60대 A씨를 무면허·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무안군 무안을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경찰의 머리와 경장이 등을 가격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2%로 측정됐다.

또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무안=김상호기자

대낮 행인 흉기로 휘두른 50대 검거

대낮에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가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50)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께 남구 월산동 월산사거리 부근에서 길을 걷던 60대 남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한 후, 검거에 나서 이날 오후 3시10분께 광주 송정역 대합실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인기자

신안카약타러 간 50대 숨진 채 발견

카약을 타러 신안의 한 해수욕장에 갔다가 실종된 A (50대)씨가 수색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7분께 해수욕장으로부터 약 26km 떨어진 해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7시58분께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다. /신안=양훈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